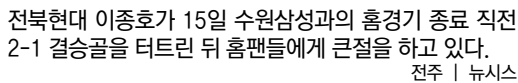




※ NC:LG, 한화:kt 경기는 우천순연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sportsdonga.com 20판



이적생 이종호가 '극장골'로 전북현대의 선두 질주에 앞장섰다. 전북은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13라운드 2-2로 비기는 등 최근 2경기에 그쳤던 전북은 모처럼 짜릿한 승점 3점 고지에 올랐다.

이동국을 최전방에 두고 루이스-레오나르도-로페즈 등 용병 3총사를 모두 선발로 내세운 전복은 쓰리배를 들고 나온 수원의 수비를 뚫는 데 성공하여 애를 먹었다. 그러나 상대 수비의 균열 덕분에 선제공격의 행운을 맞았다. 전방 37년 역속 상황에서 루이스가 중앙으로 뛰어들면 이동국을 보고 땅볼 크로스를 했고, 수원 수비수 민상기가 이를 건어낸다는 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향했다. 전복은 후반 34분 수원 염기훈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3연속 무승부 속에 1:1 자리에 FC서울을 내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이종호가 반격했다. 이동국 대신 후반 교체투입된 이종호는 종료 직전인 후반 49분 문전혼전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수원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전남 드래곤스에서 뛰다 전복으로 이적한 이종호는 4개월 만에 새 팀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홈팬들을 열광시켰다.

2위 서울(9승2무3패·승점 29)은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대만의 2골 활약을 힘입어 3-2 승리를 거두고 전북과의 격차를 유지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수원FC를 2-0으로 꺾고 팔미 탈출에 성공했다. 인천은 수원FC와 2승5무7패(승점11)로 동물을 이겼으나, 다득점에서 앞서 11위로 올라섰다. 전남(2승6무6패·승점 12)도 울산현대를 3-1로 잡고 10위로 한 계단 도약했다. 상생 스틸러스는 성남을 3-1로 눌렀고, 상주상무는 포항스틸의 제주 유나이티드를 4-0으로 격파했다. 한편 이날 6경기에서 모두 7명의 자책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주 ④ 김도원 기자 dhoney@donga.com
성암 | 최홍성 기자 ghyoung@donga.com

전주 |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상암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김경문 감독〉

김태군에 “수비만 잘하면 돼” 격려
이민호도 문자 받고 나서 시즌 첫 승
“야구가 안 되거나 아프면 흥미 잃어
그러지 말라고 선배로서 보내는 것”

NC 김경문 감독은 강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는 사령탑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지닌 주전선수라도 과감히 벤치를 앉힌다. "팀은 특정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선수가 팀을 위해 뛰어야한다. 그 선수가 없으면 딴 선수를 쓰면 된다"는 게 김 감독의 선수단 운영원칙이다. 그러나 김 감독의 카리스마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함도 있다. NC 선수들이 말하는 '감독님의 문자'에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다. 두산 양의지, 롯데 강민호, 넥센 박동원까지 공격형 포수들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자신이 혹 팀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됐다.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 감독이었다.

김태균은 “감독님께서 ‘타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비에만 신경 써라. 포수는 수비만 잘 하면 된다’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놀랐다”며 “사실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경기에 내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내 마음까지 헤아려주셨다. 감동했다”고 귀띔했다.

●감독의 한 마디에 힘 얻는 선수들

감독의 한 마디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

실제 이민호는 김 감독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시즌 첫 승을 거뒀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감독님이 문자로 많이 격려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다. 외국인투수가 1명 빠지면서 토종선발의 역할이 중요해진 2015년에도 감독은 중책을 맡은 이재학에게 ‘탐

을 생각할 위치는 됐지만 너무 부담
을 가지지 말라'며 애정 어린 문자
를 보냈다.

단순히 문자뿐 아니다. 김 감독은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다가 마무리 활약 중인 '임창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1군 엔트리에 없는 '모창민'의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스프링캠프를 잘 준비했다가 2군에서 뛰고 있는 모창민을 언론을 통해 언급하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한 것이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 “어느 감독이나 다 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잘 하는 선수들은 내버려둬도 잘 하지만, 야구가 잘 안 되거나 아프거나 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이 아닌 야구선배로서, 형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가끔 보낸다. 나도 그랬지만 야구가 잘 안 되면 재미가 없어진다. 야구 선수가 야구에 흥미를 잃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자주 는 아나고 가끔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그 문자에 힘을 많이 얻는다고 하자 웃으며 한마디를 더했다. “그래? 그럼 자주 보내야겠네. 허허.”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13면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이를 취소했지만,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잇따라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과 각종 SNS 등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탈기'까지

이뤄지고 있다.

15일 A씨는 고소 취소 내용까지 상세히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 측은 “고소할 당시나 취하서를 접수할 때도 경찰이 분명 그 외의 일체 내용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날날이 공

개돼 충격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SNS에서는 특정 여성의 도습이 담긴 사진이 유포되며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

박유천은 총격적인 성추문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태 문제까지 압박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가 전체 복무기간의 4분의1가량을 엮거나 병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연가는 1년에 15일,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우천은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고소 사건이 알려진 13일부터 고소
취하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실명이

보도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재판이 시작되어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유천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프로축구 경기 결과 <15일> **상주** 상주 **4 : 0** 제주 **광양** 전남 **3 : 1** 울산 **전주** 전북 **2 : 1** 수원삼성 **인천** 인천 **2 : 0** 수원FC **상암** 서울 **3 : 2** 광주 **포항** 포항 **3 : 1** 성남

[illegible]